



RBDK 단독주택 대상



지역주택조합 대상



아파트 장점 결합한 신개념 단지형 단독주택

운양역 라피아노 2차

시행사 알비디케이(RBDK)가 '2018년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에서 단독주택 부문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들어서는 '운양역 라피아노 2차'다. 운양역 라피아노 2차는 김포시 운양동 1286의 7에 들어설 예정인 단지형 단독주택이다.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총 104가구 규모다. 라피아노(LAFIANO)는 시행사 알비디케이(RBDK)가 선보인 새로운 주거 형태의 복유립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한 단독주택 브랜드다. 지난해 5월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된 첫 라피아노는 최대 경쟁률 205대 1, 평균 경쟁률 65대 1로 이틀 만에 완판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운양역 라피아노 2

차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이 결합된 단지형 단독주택이다. 복유립 대표 디자인인 비에른 루네 리가 특화 디자인으로 참여했다. 입주민이 정통 복유립 감성을 느끼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단지는 철골건축물이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과 달리 내부 기둥이 불필요하다. 원터거는, 포이어 공간으로 활용해 좀 더 넓고 탁트인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단열 문제도 2단의 단열재와 석고재를 이용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절감했다. 이 외에 가구마다 총 3면의 창을 뒤통풍 및 채광 효과를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계됐으며 태양광에너지 사용으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내년 7월께

김포도시철도 전 구역이 개통되면 운양역에서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9호선에서 환승하면 여의도는 물론, 강남 진입도 편리하다. 김포한강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을 잇는 자유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운양역 라피아노 2차는 자녀들의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인근에 하늘빛초와 운양초, 하늘빛중, 운양고 등이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현대센트럴스퀘어와 CGV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모담공원과 한강중앙공원, 계양천 수변공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운양역 라피아노 2차 모델하우스는 김포시 운양동 1306의 7에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편리한 교통망·주거 친화적 설계 '호평'

철곡 북삼 서희스타힐스 더 퍼스트

서희건설이 경북 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선보인 '철곡 북삼 서희스타힐스 더 퍼스트'가 '2018년 한경주거문화대상'에서 지역주택조합대상을 수상했다. 편리한 교통망과 주거 친화적 설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에 999가구로 이뤄졌다. 743가구는 조합원, 256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59㎡ A형 279가구(일반 52가구) △전용 59㎡ B형 178가구(일반 47가구) △전용 80㎡ 타입 542가구(일반 157가구) 등 중 소형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특화 설계에 신경 썼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일조량을 확보했다. 4베이와 듀얼 3베이 등 혁신 평면을 적용해 채

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실내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 구성했고 내진 설계를 적용해 안전까지 강조했다.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교통망도 잘 갖췄다. 구미역·왜관역, 구미종합터미널을 비롯해 KTX-SRT(수서발고속철) 김천·구미역이 단지와 가깝다. 구미·남구미 나들목(IC)으로 접근도 용이해 주요 거점 도시로 이동하기 편하다. 여기에 구미·대구 광역철도가 완공하면 구미에서 서대구 구간을 약 30분 만에 갈 수 있다. 인근 개발 호재로는 울리택지 개발지구 개발 및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장과 구미·대구 광역철도망 건설(올해 착공 예정), 구미·대구~경산 노선(2020년 운행 예정) 건설 등이 꼽힌다. 구미생활권에 있어 주변에 생활편의

시설이 풍부한 편이다. 구미시청, 소방서, 북삼읍사무소, 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인근에 있다. 구미 국가산업 1~3단지도 배후에 자리해 직주근접을 갖췄다. 차로 15분 거리에 구미 롯데마트, 구미 이마트, 구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도 들어서 있다. 금오산, 북삼인평 근린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해 주말에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교육시설로는 인평초, 인평중, 북삼중, 북삼고 등이 있다. 경북 북삼읍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75%(3000여 가구)에 달한다. 2003년 입주한 150가구 규모 아파트 이후 15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이 지역에 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철곡 북삼 서희스타힐스 더 퍼스트'가 처음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블록형 단독주택처럼 세상에 없던 주거형태 선보일 것”

김병석 알비디케이 대표

“주거문화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라피아노가 주거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알비디케이(RBDK) 대표(사진)는 '2018년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단독주택부문 대상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라피아노(LAFIANO)는 알비디케이



이가 선보인 새로운 주거 형태인 복유립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한 단독주택 브랜드다. 김 대표는 “아파트라는 획일화된 주거형태의 공급만 존재했던 국내 시장에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 점이 고객과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부 공급된 타운하우스나 블록형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개념에 치우쳤던 반면 라피아노는 단독주택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고자 주택 하나하나의 독립적 공간, 중정, 테라스, 다락방과 같은 아파트에서 불가능한 공간 창출에 집중했다.” 알비디케이의 앞으로 라피아노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철곡서 가장 빛나는 ‘스타힐스’로 명품 주거단지 거듭날 것”

이주영 철곡북삼지역주택조합장

“철곡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스타힐스가 될 것입니다.” 이주영 철곡북삼지역주택조합 조합장(사진)은 '2018년 상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에서 지역주택조합대상을 받은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이 조합장은 “금오산 자락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데다 초·중·고가 반경 2km 안에 있어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노후 아파트가 많은 철곡 북삼읍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아파트로 완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단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한동안 지연된 철곡 북삼 지역의 공단·택지 지구 개발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북삼 광역철도역 설치 및 KTX 북삼역 개발도 국토교통부의 재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주민들이 누리게 될 혜택은 더욱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지 조성 뒤 인구 유입이 늘면 철곡군의 경제적 효과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단체 및 시공사와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철곡 북삼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테라스와 마당 갖춘 ‘라피아노’ ... 친환경 단독주택 대표 브랜드로

알비디케이

알비디케이(RBDK)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디벨로퍼)다. 2001년 터피엔이라는 상호로 설립했으며, 같은 해 서울 강남역 한화 오벨리스크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착수했다. 알비디케이인 사람은 위한 최적의 공간과 장소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가치를 세

롭게 창출해내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맞춤형 섹션오피스’ ‘신개념 복합단지’ 등 시장을 선도한 효율적 공간을 창조한 상품들이 알비디케이의 대표작이다. 2007년 회사명을 현재의 알비디케이로 변경하며, 공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인 사업지로는 지난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운양지구에서 진행한 블록형 단독주택 ‘라피아노’(174가구)와 같은 해 경기 남양주시 백봉지구

에 분양한 ‘두산 알프하임’(2894가구)이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 라피아노는 기존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가구가 모여 있어 안전성을 높인 동시에 기존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테라스와 마당 등이 제공돼 호평받았다. 김병석 알비디케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고객과의 작은 약속도 놓치지 않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국 100여개 단지 추진 ... 수주액 1조원 ‘호평’

서희건설은

1994년 설립한 서희건설은 시공능력평가 32위의 중견 종합건설사다. 건축과 토목을 비롯해 환경, 플랜트, 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교회, 학교, 병원을 짓는 특수건축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 삼당동 YTN 신사옥, 대전무역회관, 경원선 5개역사, 홍익대 대학로캠퍼스와 명성교회 외 40여 개 종교시설, 해운

대 백병원 가전대 김병원 외 10개 의료시설, 성남판교 지구 외 42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당진, 여수화력발전소를 준공했다. 기술과 실적을 인정받아 2014년 한경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을 비롯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경기도 건축문화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시공사 2회 선정, 한국노사협력대상, 사회공헌기업대상 등을 수상했다. 2008년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집중했다.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2012년 2270억원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 수주금액은 2015년 이후부터 1조원 이상 규모로 늘었다. 지금은 전국 100여 개 단지(9만여 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최소 5년치 물량을 진행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2014년도 매출 941억원, 영업이익 406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부터는 매출 1조원을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919억원을 기록했다.